

5월18일생 11살 신준호군, 광주시교육청에 518만원 기부

지난해 전남대 이어 2번째 기부

2013년 5월18일에 태어난 11살 초등학생이 시교육청에 518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신준호(문산초 4년)군은 지난 16일 어머니 정서연씨와 함께 시교육청을 방문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518만 원을 전달했다.

신 군은 지난해 전남대 기부에 이어 올해는 시교육청에 518만 원을 전달했다.

신 군의 부모는 아들이 5월18일에 태어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공부해왔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모색해오다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신 군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고, 의미 있는 기부에 동의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신 군의 어머니 정서연씨는 "준호의 생일이 5월 18일이라서 항상 뜻깊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며 "지난해 기부에 이어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은 "신준호 군의 마



음이 너무 고맙고 전달해준 기부금은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신 군과 같은 어린 세대에게도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의미 있는 기부금을 전달해 준 신준호군의 마음이 광주 교육가족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광주교육가족도 5·18 정

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민주, 인권, 공동체, 평화의 광주 정신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준호 군이 기부한 518만원은 5·18기념재단에서 5·18 유공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미 있게 사용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허성 한양레미콘(주) 대표이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한양레미콘(주) 허성 대표이사가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1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57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진>

허성 대표이사는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기업가의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군에 위치한 한양레미콘(주)는 2009년 설립된 레미콘 제조회사로 KSA9001 인증을 획득

하고, 2021년 기술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 레미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강소 기업이다. 2015년부터 아동양육시설과 노인생활시설 방문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간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결연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동고 총동창회, 고 전영진 열사 추모식 열어

광주대동고 총동창회(회장 이용표)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광주대동고 교정에서 고(故) 전영진 열사 추모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고(故) 전영진 열사 추모비 앞에서 진행됐으며, 전 열사의 부친인 전계량씨와(전 5·18유족회장), 총동창회 집행부, 김성진, 박희정, 홍순석, 박군택 등 부회장단, 박남언 자문이 참여했다. 또 전영진 열사의 마지막 날을 함께 했던 6회 졸업생 이덕동 동문, 강현우 6회 동문회장을 비롯한 전 열사의 동창 및 20006년 추모비 이전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최재남 동문(9회), 이철수 교장, 류이레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 등이 추모식을 함께했다.

이용표 총동창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1980년 광주대동고 3학년 당시, 목재타도를 외치고 계엄령을 철폐하라 외치다 홀연히 떠나버린 당신은



대동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고 전 열사를 추모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과 조화로 전 열사를 위로해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부대 방사선학과 학생들, 학술대회 우수상

남부대학교(총장 서범석) 방사선학과(학과장 진계환) 학생들이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17일 남부대학교에 따르면 강운수(방사선학과 3년·지도교수 안병주)씨가 최근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방사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목베의 치아돌기 골절 환자의 나사못 삽입술을 위한 엑스선 촬영법 연구' 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같은 학과 김다빈(3년·지도교수 이준행)씨는



'꼭지돌기와 바위부 진단을 위한 엑스선 Arcelin 촬영법 연구'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5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10	00 중계방송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1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20 푸리가 식자교실(재)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조선번호사(재)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낭만닥터 김사부 3(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20 스튜디오 K(재)		00 뉴스브리핑
3	00 상상푸르기 푸다 2 15 메탈카드봇 30 매직팬던트 대모험 45 프라몬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2 15 내 비밀친구 햄찌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5.18 특집 다큐 나를 찾아줘	00 SBS 오뉴스 50 KBC앙코르다큐 5.18특선 쿠데타의 역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언급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흥감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노머니 노아트	00 시사 용광로	00 우린 같이 산다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방과 후 슬램 시즌2 소년판타지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12	10 9층 시사극(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통합뉴스룸 ET(재)	00 문화콘서트 난장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시용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곡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숨이 그린 집(재)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찬란한 봄 크로아티아 -골목골목 도시 산책>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한송 돌리러 갈지라도 4부 봄날의 초대>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다크멘터리K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50 귀하신 몸
09:2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24:0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로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음 3월 29일 丙子)

<p>36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하라. 48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60년생 재물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걸어진 길을 뒤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리라. 84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96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행운의 숫자 : 01, 89</p>	<p>42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나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자. 54년생 예상했던 바와 틀림없으리라. 66년생 우선 순위 기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8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수월해지리라. 90년생 경쟁력이 큰 것만으로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02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흠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7, 59</p>
<p>37년생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이니 분명하게 말바꿈하자. 4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61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해 필요하다. 73년생 의도적으러라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85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97년생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놓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04, 76</p>	<p>43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음이 속편할 것이다. 55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니라. 67년생 상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린다. 79년생 전 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91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03년생 서로가 화합하니 기쁨이 넘치는구나! 행운의 숫자 : 04, 68</p>
<p>38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50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62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74년생 현실의 여정에 순응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높여나다. 86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98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진보하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77</p>	<p>44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두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56년생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68년생 1차적으로는 무난하겠지만 그다음에 문제다. 80년생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조처하자. 92년생 큰 것만 바라다가 작은 것마저 놓친다. 04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5, 65</p>
<p>39년생 문혀 비밀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51년생 끈질기게 밀고 나가면 분명한 승산이 보인다. 6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75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99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0, 81</p>	<p>45년생 회자정리하는 법이 아무리 아깝고 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묵은 것과 결별해야만 한다. 57년생 우선 히 맞닥뜨릴 수도 있느니라. 69년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81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93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로다. 05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49, 58</p>
<p>40년생 이목을 끄는 관심사가 생긴다. 52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썩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64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6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88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00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5, 60</p>	<p>34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46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58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70년생 의무를 다해야 할 처지로서 힘들겠다. 82년생 빈 곳부터 먼저 채워주는 것이 낫겠다. 94년생 정성을 다하여라. 행운의 숫자 : 33, 84</p>
<p>41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53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될 필요는 없다. 77년생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이다. 89년생 중박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69</p>	<p>35년생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47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59년생 양자의 사이에서 조정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71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83년생 태산처럼 마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95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면 득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19, 71</p>